



한국농업의 생과 사

■ 이제 훈 /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지난 9월 11일 추석날 새벽, 멕시코 칸쿤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장으로 부터 한국농업의 사망을 알리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한국농업이 WTO에 완전 개방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온몸으로 막으려고 한 전 농민후계자 회장의 할복 사망이 그것이다. 필자는 농변의 대표간사로서 이번에 사망한 전 회장이 주도하던 후계자들의 전국대회에 농촌법률상담을 위하여 참가하면서 농업사랑을 인연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 기회에 우리는 전 농민후계자 회장 사망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한국농업의 새로운 부활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농업의 WTO 대응전략

개방저지 한계와 개방대응 방법론

우리는 94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응하던 일본의 강은 이중적 전략구사를 기

억한다. 한편으로 농민들의 시위를 조장하고, 이를 무기로 하여 농산물 수출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일본의 협상전략은 그 당시로서는 돋보이는 방법론이었다. 그 후 일본이 이번 WTO 각료회의에 농산물수출 G22 국가의 하나로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각료회의는 결렬되고 다자회담은 연기되었으나 그보다 더 엄습하는 양자회담이 우리나라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운 게임이다.

생명산업인 농업 보호정책

농업은 인류의 생명산업이고, 농민들에게는 종교이다. 누구나 먹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우리는 조상 전대로 농업을 만업의 기본으로 여겨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였다. 그러면서도 농민은 주인의 위치(農民天下之大主)를 인정받지 못하였고, 농업도 사농공



상(土農工商) 중에서 가장 대우받지 못하는 직업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농업이 생명산업이라면 농업이 우선 국내에서 신앙적 생명산업으로서 불가침, 불퇴진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

농업기술·세계 제일 농산물브랜드 개발

우리의 농업기술은 세계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최고는 아니다. 우리는 IMF 이후에 한심하게도 종자산업까지 외국회사에 팔아넘겼다. 우리는 농업에 있어서는 우물안의 개구리이다. 인삼, 김치, 꽃선인장, 신고배 등 현실적으로 세계시장에 최고라고 내세울 수 있는 농산물 브랜드(Brand)를 개발하여야 한다.

한국농업의 부활

국내 농정개발

필자는 여기에서 우리농업의 부활을 위하여 두 가지의 제안을 하고 싶다. 하나는 국내농업의 경쟁력 강화이고 또 하나는

수출농산물의 개발이다.

국내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들고 돈 안되는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포장, 가공, 유통, 수출입 등 시간이 적게 들면서 수익은 배가되는 농산물 2차산업, 3차산업도 농민의 몫으로 되돌려받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통하여 농민자본이 형성되어야 한다. 즉 농업의 모든 것을 농민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또 농민 빛을 감면해 주어야 한다. 농민에게 준 빛은 농사가 성공하면 환수하여야 하지만 농업에 투자된 범위내에서는 농사가 폐농되었으면 감면해 주어야 한다.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하는 먹거리의 생산은 원래는 국가의 책임이지 농민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전이나 지하자원 개발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투자금감면제도를 이미 가지고 있고, 그러한 필요성은 농업에 있어서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출농업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

“

**한국농업의 세계화 전략, 동북중아농목축업개발=동북중아중심국가
한국농업 경쟁력 강화·수출농산물 개발·해외농업 적극 개발해야**

”

농산물중 세계제일이 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수출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농민 스스로 해외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여 현지수출, 개발수출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울러 중국 등 주변국의 값싼 농산물을 가공하여 역수출하는 것이다. 동양의 신비를 건강식품으로 개발하여 선진국을 대상으로 수출하여야 한다. WTO 이후 세계무역질서는 농산물 수출국 그룹과 수입국 그룹으로 나뉘어 수출국그룹이 수입국그룹의 무역질서를 통제하는 체제로 전이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빨리 농산물수출국으로 변신하여 우리농업에 보호막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농업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농업정책을 전문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필자는 농업을 걱정하는 변호사모임(農辯)을 제안하여 국내외의 변호사 42명의 호응을 받아 농촌현장에서 일어나는 농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농산물 개방화에 대한 대책 등을 강구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농업관련 법령을 농민보호 쪽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제는 농민단체나 농민들의 대처방법도 집단적 항의(시위)뿐만 아니라 전문적이어야 하고, 전략적 기획에 의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끝으로 농업재해를 보상해야 한다. 지구상의 기상은 해수의 불규칙한 온도변화로 인하여 예측불허의 기상변화를 초래하고, 연례적으로 우리농업에 대단위 재해를 입히고 있다. 천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보상, 보험제도의 도입이 시급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좀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해외 농업의 개발

필자의 또 하나의 제안은 몇 가지를 통한 해외농업의 적극적 개발이다. 첫째는 인류의 먹거리의 생산, 공급이다. 세계 인류의 먹거리인 식량과 야채를 우리민족, 우리농민의 손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라인의 개발이다. 그것이 우리가 세계인, 특히 선진국을 생명산업을 통하여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른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민족은 세계 130여 개국에 700만 이상이 진출해 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도 농산물생산과 유통에 종사하고 있다. 뉴욕의 야채는 뉴욕한인청과상조회가 90%이상을 공급한다. LA도 같은 수준이다. 91년모스크바에 갔을 때 모스크바 근교의 400ha의 비닐하우스에서 공급되는 야채는 모스크바시민 수요량의 4

분의 1정도를 충족하고 그 나머지 야채와 과일은 카자흐스탄에서 공급되고 있었다. 카자흐스탄의 식품과 야채는 고려인들의 몫이다.

다음으로 동북중아 농목축업개발 = 동북중아 중심국가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동북중아국민연대(North-east Central Asia Solidarity, NECAS)의 필요성을 주창한다. 동북중아시아를 잇는 국가들, 남북한과 극동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아 등 총넓이 1,200만km², 역세권 인구 1억4,000만의 동북중아국민연대(NECAS, North-east Central Asia Solidarity)와 국가연합(NECAU)을 제안한다. 여기에 조선족 거주지 만주 동북3성을 포함하면 인구 3억4,000만이다. 우리는 동북중아 제국가와 함께 식량과 수산자원, 축산과 목축, 에너지 자원, 지하자원을 공동 개발하여 세계의 중심에서 세계인의 식탁을 디자인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21세기 뉴딜(New Deal) 정책이다. 우리의 경제지표는 계속하여 다운되는 이상기류가 흐른다. IMF이상 가는 경제공황에 직면 할 수도 있다. 세계적 고임금속에서 고질적 노사분규에 시달려 생산공장은 해외로 빠져 나가고 일자리는 줄어든다.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시기에 정책적 대처를 바로하지 못하면 20대 청년실업이 33만인 우리로서는 2030세대의 이

탈과 새뮤얼헨팅턴이 우려하는 파시즘과 극단적인 민족주의 운동으로 국가경제의 동공화와 외교계의 고아가 될 수도 있다. 실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직장을 주는 정책으로서라도 해외농업개발을 제안한다. 병역의무를 치러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병역법 36조에 근거한 영농후계자로서 해외 농수산업에 투여되어 병역의무기간에 농사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하는 것도 전통적 농업국가 대한민국의 국민교육을 위한 한 방법이다.

농업 통한 세계제패 · 세계 중심국가 달성

연해주, 몽골에 새마을 공동생활촌을 건립하고 주민의 자유왕래와 양국화폐의 공동사용도 시도해 볼만 하다. 특히 극동러시아개발에 러시아차관자금을 투자전환하여 활용해 봄직하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젊은이들, 지원자들, 민족의식이 투철한 자들을 엄선하여 그들에게 세계평화와 봉사의 전도사로서, 한민족의 세계제패의 전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볼만하다. 1900년도 일본의 흑룡회(黑龍會)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애국심은 돋보인다. 필자는 이러한 뜻에서 세계를 제패한 몽고리안 기마민족의 후예인 우리민족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하고 싶다. 이제 세계 130여개국 700만 해외동포를 참여시켜 이를 실천적으로 시도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농업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세계 중심국가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 **농약정보**